

◇체외순환 없이 시행한 관상동맥우회로술의 임상적 결과

양현웅, 최중범, 한재오, 고광표, 최순호

원광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

배경 및 목적 : 심폐기로 체외순환을 하지 않고 박동상태에서 관상동맥우회로술을 하는 것이 허혈성 심근을 재관류하는 하나의 수술방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. 최근 우리는 이 수술을 경험하고 그에 대한 결과 및 그 유용성을 알고자 하였다.

방법 : 13예의 관상동맥 질환을 가진 불안정성 협심증환자에서 체외순환 없이 관상동맥우회로수술을 하였다. 1혈관질환이 3예, 2혈관질환이 5예, 3혈관질환이 5예였고, 모든 환자에서 좌전하행지의 협착을 위해 내흉동맥편을 사용하였다. 평균 이식편수는 1.7 ± 0.9 [범위, 1-3편]였다.

결과 : 수술사망은 없었다. 12예[92.3%]에서 좌 내흉동맥편을, 1예에서 우 내흉동맥편을 좌전하행지에 문합했다. 체외순환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환자는 3예였다. 4예[30.8%]는 수술 전에 일부 병변을 위해서 경피적 관상동맥성형술을 하였다. 1예[7.7%]에서 수술 후 2시간에 심정지가 발생하여 체외순환을 설치하고 이식편을 추가하였다. 초기의 2예 환자에서 내흉동맥편의 문합부위에 경도의 협착을 보였으나, 수술 후 모든 환자에서 심근허혈 현상 및 증상이 호전되었다. 평균 수술시간은 340 ± 64 분이었고, 농축적혈구의 평균 수혈량은 1.5 ± 0.9 units였다.

결론 : 체외순환 없이 시행하는 관상동맥 우회로술은 허혈성 심근의 재관류를 위해서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될 수 있으나 안전한 수술을 위해서는 대상 환자의 조심스런 선택이 필요하며 특히 3혈관 질환에서 이 수술 방법의 유용성을 알고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.

책임저자:최중범(원광의대 흉부외과) 발표자:양현웅(원광의대 흉부외과)